

## Telescope Overdenture



**방 몽 속**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교수)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광주기독병원 보철과 전공의  
광주기독병원 치과 과장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일본 쓰루미 치과대학 및 동경의과치과대학 교환 교수  
미국 켄터키 루이빌 대학 교환 교수

환자의 상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치료계획 수립 후에 의치를 설계하고, 지대치 형성이나 치료를 시작하여야 한다. 치아을 전부 발거할 경우 감각 능력의 상실, 치조골의 계속적인 흡수, 교합력의 감소, 구강기능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overdenture를 이용하여 감각수용기능의 유지, 잔존치조제의 보존 등 기능적, 생물학적 견지에서 다수의 잇점을 얻을 수 있다.

Overdenture 하방의 잔존치근에 보철치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근관입구를 충전하고 표면을 활택하게 지대치 형성, 연마한 후에 그 위에 overdenture를 제작하게 되는데 비용도 저렴하고 가장 짧은 수직 길이의 지대치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잔존치근에 보철치료를 하는 경우는 dome shape coping 방법과 attachment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telescopic crown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Dome shape coping을 하는 경우는 치관 치근 비를 개선할 수가 있으며, 지대치에 가해지는 측방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치관의 길이를 짧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의 보존에 유리하고 인공치 배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Overdenture의 부가적인 유지와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상품화된 다양한 attachment system을 이용할 수 있는데 stud attachment, bar attachment가 널리 쓰인다. 자석유지장치를 이용한 magnetic overdenture는 지지증가 및 간단한 기공과정 등이 유리하나 구강 내 환경은 항상 수분과 음식물에 노출되므로 부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Telescopic crown은 직경이 다른 두 개의 원통형 구조로 된 이중 치관으로써 지대치에 영구 고정되는 일차 coping 또는 내관과 의치에 견고하게 고정되는 외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내관과 외관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서 작용하여 의치의 유지와 지지를 제공한다. Konus telescopic overdenture의 장점으로서는 내,외관의 착탈시 지대치에 과도한 힘이 부여되지 않고 유지력이 오래 지속되며, 상부구조의 철거시 구강위생관리가 용이하다는 점, 의치 장착이 용이하다는 점등이 있으나 6-8도의 경사도를 가지므로 치경부에 undercut이 생길 수 있고 유지력 상실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